

식민지 시대 말기 정인섭의 유럽여행기
-세계체제 변동과 서구 시좌의 변경의 단층

漢陽大學校 車惠英

1. 문제제기

이 글은 정인섭의 일제말기 서구 유럽 여행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초고이다. 정인섭은 1936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언어학자 대회에 참가한 후 유럽 지역을 여행했고(1936.8월~1936.9월, 대략 1~2개월), 귀국 후 몇몇 잡지에 기행문을 남겼다.

정인섭은 1905년 생으로 1926년 와세다대학 영문과에 입학 후, 1929년 귀국해 연희전문 교수를 지낸 바 있다. 1936년 8월 세계언어학자 대회는 연희전문 교수로 재직중 이루어진 것으로 이 당시 그는 한글학회(1930), 조선민속학회(1932), 조선음성학회(1935)에 가입해 있었고, 해외문학과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언어학자대회는 그의 이런 조선음성학회와 해외문학과 활동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인섭에 대한 연구는 주로 민속학 연구, 해외문학과 및 번역 활동의 의미에 대해 연구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본고는 한국근대 해외기행문 연구라는 필자의 연구테마의 한 부분 속에서 이루어진다. 정인섭의 글뿐 아니라, 대다수의 한국근대 해외 여행기가 문제적인 것은 세계를 여행하고 기록한 글이, 사실(체험), 기록(사적 기록, 공적 발표), 근대 대중 언론미디어, 미디어가 놓이는 정치적·자본적 의미망에 긴밀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근대기는 국가간 자본주의 시스템으로서의 세계체제 하, 제국과 식민지의 재조정, 양차 대전을 통해 다양한 신생독립국들이 출현한 시기이다. 이 과정에서 국경을 넘는 여행은 그때까지와는 달리, 교통, 통신, 정보의 빠른 교류와 확실한 경계와 차단(국적, 여권, 세관, 입국심사...), 그것이 연루된 국제적 힘의 역관계의 거듭되는 재조정 시기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해외여행과 그것에 대한 언론매체를 통한 공유된 기록은, 역설적으로 사적인 체험과 글 자체에 관통되는 공적 집단적 사실, 공공 미디어를 통한 대중지(大衆知)의 복합적 연루, 그 연루의 과정 속에 기저로 놓인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과 식민지의 선택을 둘러싼, 집단적·개인적 정체성의 쟁투장으로서의 모습을 그 태생부터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점에서 정인섭의 유럽여행기 문제적인 것은 1936년 8월~9월이라는 여행체험의 시점과, 그것이 게재된 시점(1937~1941)¹ 사이에 놓인 차이 때문이다. 그의 체험과 기록은, 1. 중일전쟁 이전 체험, 2. 중일전쟁 이후 기록(의 시도와 실패)², 3. 2차대전 시기의 기록으로 나뉜다. 이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2차대전 시기 1940년의 기록은, 실제 여정의 순서와 달리,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되는 북유럽 공격과 정복, 파리 함락 등 2차 대전의 진행 순서를 따라 글이 게재되고 있다. 베를린으로부터 시작해 유럽 진군의 여정을 통해 이탈리아를 도달점으로 하는 여행기의 『조광』지 게재 순서는, 3국(독일, 일본, 이탈리아) 추축국 동맹의 정신을 기저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제적인 것은 이 유럽여행기의 대부분이 4. 1960년 『세계문학 산견』이라는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이다. 해방 후 출간된 책에서는 『조광』지 여행기에 대한 일부 수정, 변명, 삭제, 기억의 착오(자료 부재), 부재했던 여행기의 복원되어 수록되기도 한다.

이렇게 본다면 그의 여행과 기록(36년/ 37-8년/ 39-41년/ 1960년)은 한국근대가 마주친 세계체제와 제국적·국가적 변동의 핵심적 분기점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의 한국문학과 역사 연구는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전쟁, 이 속에서 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 및 여기서 한국인의 선택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이 경우 한국역사 및 문학연구는 일본을 (거의 유일한)상대이자, 상수로 놓는 문제들이 설정되어왔다. 그러나 일본 역시 사실상, 국제정치의 역학 속 하나의 변수, 국제관계속에 연루된 일부였다고 할 수 있다. 함께 연루된 관계, 국제정치 속의 장 규정성은, 근대 시기 내내, 예컨대 1920년대 사회주의나 1930년대 코민테른은 물론이고, 1차대전 후의 세계 개조의 흐름이나 워싱턴 회의 등이 가져온 민족주의 진영의 기대와 좌절 등, 언제나 한국근대사 속을 관통하는 전제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식민지 시대 한국인의 경우, 이 세계대세, 세계정세를 보는 시좌의 설정에 있어, 세계에 기대어 일본을 상대화하는 시기, 반대로 세계의 지역분할 속에서 일본과 한 그룹이 되기를 선택하는 시기로 나뉜다고 할 수 있는데, 정인섭의 여행기가 씌어지는 위의 시기는 이 시좌변동, 그것을 강제한 세계의 객관적 정세의 변동이 이루어진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여행기가 다룬 유럽은 그 변동의 일상적, 국지적, 경제적 모습을 단층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여정과 게재 순서

<여행순서>-1936년

¹ 1차: 『사해공론』(1937.1월)이집트(1회), 『삼천리 문학』(1938.1월, 4월), 『삼천리』(1938.10월) 아일랜드(3회). / 2차: 『조광』 1939.8-1941.1월(10회), 『문장』, 1940.5월(1회) -베를린, 파리,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이탈리아

² 여정과 날짜 상에는 분명히 존재했는데, 당대 일제말기에는 발표되지 않은 여행지역들이 존재한다. 이는 1960년 복원된다.

조선 --> 미기록여로(추정: 소련, 폴란드경유) --> 베를린(8/21 도착)-->덴마크(8/25 도착) --> 영국(9/2 런던 도착) -- 아일랜드(9/7. 도착) --[스코틀랜드(윌터 스코트, 스티븐슨 기념관)--영국:호반도시의 위즈워드 묘지-섹스피어생가(9/12)] --> 파리(9/12—9/17) --> 스위스(9/17) --> 이태리(9/18 도착)-->아테네(9/21)-->이집트(9/24) --> 귀환예정(아덴만, 스에즈 운하(예고))

<계재순서>1937년-1941년

이집트(『사해공론』 37.1 월)--아일랜드(38년 3회)--영국문단순례(미완 1회, 조광, 38.5 월)--백림기(독일, 『조광』, 39.8 월)--파리의 추억(40.3 월, 4 월, 5 월-3회)--와이마르시(독일, 『문장』, 40년 5월)--정말시찰기(덴마크, 『조광』, 40.7 월, 8 위)--서서의 자연과 인문(스위스, 『조광』, 1940.9 월) -- 이태리 방문기(『조광』, 40.11 월)--라마의 인상(로마, 40.12 월)--이태리기행, 폼페이 감상(『조광』, 41.1 월)

3. 분석과 재구성- 3 개의 기록의 접임기

1) 1938년- 『삼천리』와 영국, 아일랜드 —

영국과 아일랜드 지역은 10 일(9/2~9/12)간의 최장기 체류지역이었다. 영문학 연구자라는 점에서 애정과 감동이 짙게 배어있는 상세한 문예기행의 성격을 보여준다. 여행의 순서상 베를린, 덴마크 등 북유럽이 먼저임에도, 귀국 직후 먼저 발표한 것(1938년, 삼천리 3회-아일랜드, 조광-1회-영국)도 이 지역 문예기행이다.

(1) 아일랜드

궁핍한 시골 같은 더블린과 부유한 북부 영국령, 신생의 활기와 문학·연극운동의 정열이 넘치는 독립국가 아일랜드와 부유하지만 퇴폐와 유혹이 넘치는 북부 영국령의 대비, 두 지역간의 화폐 불통, 우편 시스템 불통, 증오가 일상화된 분열.

(2) 영국

『조광』의 영국문단 순례라는 제목으로 “續”을 예고하고 “巡禮”를 약속했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못했다. 1938년 5월(『영국문단순례』)와 1939년 8월(『백림기』)사이, 그가 기대하고 사랑하고 야심차게 준비한 영문학의 고향 순례는 중단되고, 1960년에 발간된 『세계문학산건』에서 상세히 복원된다.

2) 1940년- 『조광』 10회, 『문장』 1회 : 북부 유럽-독일의 정복지들

(1) 탈베르사이유 체제, 독일의 유럽정복과 삼국동맹의 정신지리

- 『조광』 1938년 5월(『영국문단순례』)가 중단되고 새로 연재가 시작된 1939년 8월(『백림기』)사이, 1년 3개월의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은, 公적으로는 1938년 무한

삼진 함락과 함께 중일전쟁이 본격화하고 동아진질서 건설이 발표된다. 1939년 8월 독소불가침 조약이 체결되면서 곧 폴란드 침공으로, 계속 예고되어오던 유럽전쟁이 시작된다. 정인섭 私적으로는 1939년 6월 皇軍慰問團으로 度支使節 送別을 시작으로 각종 문인협회, 간담회를 통해 시국협력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1939년 「백림기」를 시작으로 1940년 1년간 거의 매달 연재한 유럽 기행문의 가장 큰 특징은 글쓰기 자체가 복층구조라는 것이다. 상세한 여정-도착, 대사관, 총영사관, 일본인 회관 찾기, 숙소 교섭, 각종 교통편, 관광안내지도 구입, 관광지 방문, 만난 사람, 관찰한 사실, 국경 경비의 각종 제도들의 통과....-은 여행 당시의 일정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여행한 관광지, 방문한 명소에 대한 감상은 글쓰는 현재의 감상이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파리에서 박물관, 미술관들을 보았을 테지만 그가 주의깊게 서술한 것은 베르사이유 궁의 거울의 방(1차대전 강화조약 체결의 장소)과 그 조약의 무가치함에 대한 조롱, 정조대가 있는 클로니클 박물관, 그리고 밤거리의 유혹하는 여성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스위스 제네바의 아름다운 알프스의 호반은 국제연맹의 쇠락과 가치평하로 전유된다. 그래서 일련의 유럽 여행기는 베르사이유 평화체제에 대한 종말 선언과 새로운 질서로서의 히틀러의 파시즘의 도래, 퇴락과 부패로 몰락이 임박한 파리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신질서의 태동지역으로서의 독일, 그리고 일상적 사랑이 싹트는 고요한 풍경의 이탈리아로 마무리된다.

ex) 참고: 본문 일부 인용-뒤

3) 1960년- 『세계문학산견』-수정, 변명, 복원, 기억착오 -해방과 국가수립 이후 사좌의 조정

(1) 수정, 변명 -2차대전기 『조광』 소재 일본적 친연성에 대한 수정과 변명

1960년에 발간된 『세계문학산견』에는 주로 『조광』 소재 기행문을 수정한 부분이 등장한다.

ex)참고-뒤

(2) 삭제- 프랑스 파리 1940년 4월분 전체가 삭제된 채 단행본화.

(3) 복원 - 문학 자체, 서구 문화의 기원

-영국: 당대에 썩어지지 못했던 영문학의 고향 순례는 1960년 단행본에 게재. 스코틀랜드에서의 윌터 스코트와 소설가 스티븐슨의 사적지, 섹스피어 생가, 호반도시의 문인들 등 / 영연방 국가가 보여주는 극도의 이윤추구행위에 대한 비판 및, 가난한 유럽인들, 관광자본화된 문학기념물과 그 운영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기록

-그리스 : 서구문화의 원천 분향을 찾고싶다는 간절함과 설레임이 기본적 정서. “나는 내가 일평생동안 동경하던 희랍방문의 결승점에 들어온 셈이다. 가슴이 무척 덜렁덜렁해지고 머리가 이상하게 긴장된다.” 새로 난 신작로를 보면서도 “새로 약진하려는 희랍의 일면모”를 추측하기도 한다.

(4) 기억착오 혹은 자료의 문제 - 폴란드 - 침격당하는 약소민족의 운명, 연대와 애정

4. 1930년대 후반 이후 관류되는 세계체제, 국가간 자본주의 시스템과 문학의 위치방식

앞서 『조광』지의 1940년 글이 주로 2차대전 시 독일의 정복지역을 따라가는 순서, 그 기저에 놓인 파시즘 세력 즉 일·독·이 삼국동맹의 시좌에 기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관광 장소 및 기념물에 대한 ‘감상’ 즉, 정인섭의 1940년의 주관적 감상이 공적이고 정치적인 심상지리와 결합한 방식일 것이다.

반면, 그의 여행의 당시 사실기록 (관찰, 겪은 일...)은, 다른 방식으로 당대 세계정세의 변동과 실제, 그것이 ‘세계’와 ‘일상’에 가져오는 변화를 보여준다. 극히 개인적 체험기록이 대공황 이후, 파시즘기, 보호무역하 블록경제 시대의 국가간 자본주의 시스템을 보여주는 여행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대공황, 파시즘, 보호무역하 블록경제 시대의 국가간 자본주의 시스템

- 여행권 검사, 입국 절차, 쿡·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세계적 관광여행사, 숙박, 세관, 환전, 짐검사

- 개인여행자의 세계 관광여행, 그것이 가능한 시스템과 경계, 개인의 차원, 관광 시스템, 국가간 시스템들을 상세히 보여준다. 이 상세함은 한국근대 해외기행문에서 정인섭의 여행기만이 보여주는 특징이다. 이는 아마도 그의 여행이 안내자 없이 혼자 하는 여행, 유학이 아닌 단시간 안에 이루어진 순수 관광여행이라는 점, 언어가 가능했다는 점, 그리고 1936년 시점, 블록경제 및 보호무역주의 하 환전과 물류의 이동 등에 엄격해진 당대 세계정세의 변모 등이 연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 <세관검사-영국>

“가방이란 가방은 속속들이 다 들추어보고 외국물로서 상품화될 염려가 있는 것은 철저히 심사하고 정가의 반가를 소위 수입보증금으로 몰수하게 한다. 거기서 개인의 사정이란 있을 수 없다. 자기나라 상품과 무역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영국사람들 만큼 심하게 구는 국민도 없는 모양이다.....나는 카메라와 망원경에 4 배를 지불했다. (『영국문단순례』, 『조광』 1938.5)

2) 거대도시들의 세계적 동시성- 카페, 댄스홀, 유흥지의 밤거리 유흥

파리,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벨페스트, 베를린, 로마 어디든 밤거리의 오락문화와 돈있는 동양의 관광객을 향해 유혹하는 거리의 여성들은 어디나 정인섭이 ‘지겨워할 만큼’ 넘쳐난다. 이런 자본주의 도시의 밤거리의 쾌락, 유흥, 퇴폐는 30년대 중반, 대중종합지를 통해 이미 경성과 동경, 상해와 하얼빈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표상된

내용이다. 실제 ‘몽파리’ 레뷰 공연 등은 경성, 동경, 상해에서 익숙하게 언급된 것들이고, 정인섭의 여행기는 이것을 파리에서 보고 반복, 기억한다.

“파리서 제일 변화한 일대라고 하는 ‘이탈리안 街’, ‘생 마르탱’, ‘레뷰브릭 광장, 바스티유 광장....대상점, 대화사, 대식당, 대카페, 대오락장 등 말하자면 동경의 銀座와 淺草를 합한듯한 곳이며 경성으로 치면 종로통이나 본정통 같은 곳이다.”-249-250

이는 세계 거대문명의 요람으로 표상되었던 지역이, 자본주의 도시가 갖는 하층 대중문화의 세계적 동시성으로 표상변경되는 상태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럽은 돈으로 구입가능한 만만한 파리, 베를린, 로마, 스코틀랜드로 전환된다. 여기에는 분명 대공황을 겪는 유럽, 만주국 수립 후 공황에서 회복되는(되리라는) 동양의 여행자 라는 시좌설정이 배어있다. 즉 기존의 서구문명지와 동양인 여행자가, 관광객과 관광지라는 시선으로, 구매자와 판매자로 재배치되어있는 것이다. 이 재배치에는 앞서 언급한 30 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한 세계변동(공황과 블록경제화), 만주경기에 대한 보도등을 통해 증가한 조선인의 경제적 낙관주의, 블록 경제하 세계 속에서 조선과 일본이 하나로 그룹화되는 위치 변동 등 중층적 기제들이 놓여있을 것이다.

3) 시장` 국민국가` 문학(예술)의 삼각형-자본주의 관광시스템과 국가적 기념물로서의 문예

세 번의 기록을 통해 그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축은 문학이다. 언제나 새로운 지역에 갈 때마다, 학예기행, 문예기행, 문학기행의 성격을 재확인하면서 여정을 계획하고 기록했다. 그런데 이 기록의 치밀성이, 문학의 국민국가와 자본주의 속에서 어떻게 기념물로, 상품으로, 지역 재산으로 존립하는 지를 상세히 보여준다. (기념관의 경우-입장권, 안내자, 유람 순회버스 운영, 생가 박물관의 조성의 과정, 기념물 배치, 기념품 판매소.../ 국가기념상 속에 배치된 문인묘지와 공원화, 국가자산이자 지역 자산으로서의 역할 등)

5. 시작과 끝-유럽에 대해 공적 심상지리의 변경의 단층들

- 식민지 시대 말기, 그의 여행기가 보여주는 유럽은, 1929 년 이후 미국으로부터 비롯되어 세계를 휩쓴 대공황의 후유증이 유럽을 점령하고 있는 시대,³ 무솔리니와 히틀러의 파시즘이 경제적 성공과 인기를 구가하고 희망의 아이콘으로 존재하던 시대의 유럽이었다. 세계의 유명 관광지 거대도시를 방문하면서 만나는 것은 여행하는 나그네를 유혹하는 밤거리의 여자들, 카페, 댄스홀 등 세계적 동시성 속에서 익숙해진

³ 한국근대 여행기에서 ‘가난한 유럽인’ 이 씌어진 것은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환락의 밤문화, 구걸하는 거지들이었다. 기대를 품고 방문한 문학 기념관, 작가의 생가 등은 아름답지만, 악다구니 치는 팁 요구, 관람버스 운영상의 이윤추구, 안내 가이드와의 실랑이, 구걸하는 거지가 함께 하는, ‘문화와는 거리가 먼 풍경’들이다. 특히 보호무역주의하에서 극도로 삼엄한 세관검사, 블록 경제하에서 자국 화폐유출을 금지하는 환전소 등, 세계경제가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대공황의 후유증, 파시즘과 보호무역주의, 블록화되는 경제권역 속에서 국경 경비 시스템의 편차 등이 보여진다.

-그런데 정인섭의 여행의 끝이자 글의 시작지점(이집트), 감동하면서 쓰고 싶어했지만 쓰지 못했던 곳 (그리스), 그가 가장 먼저 쓰고 싶었던 곳(아일랜드), 이 나라(그리스, 이집트, 아일랜드)들은, 사실상 1 차 대전 이후 독립한, 베르사이유 평화체제의 산물이다.⁴ 이런 나라들에 대한 애정과 기대와 연민이 섞인 여행기는 한국에서 1922~29 년 무렵, 다량 생산되었다.⁵ 이것들은 베르사이유 체제 및 워싱턴 체제가 유지되고, 일본이 국제협조주의 기조의 외교정책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 그리고 “세계대세가 세계개조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세계진보와 약소민족의 미래에 대한 낙관성의 감각이-개조론과 다이쇼민주주의와 함께- 식민지 조선 내 지식 담론의 기저를 이루던 시기의 산물이다. 이점에서, 정인섭의 글쓰기의 시작 지역들은, 이전까지 지속되어왔던 심상지리(서구문화의 진보적 낙관성에 대한 믿음과 세계약소민족의 미래에 대한 믿음)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판단해도 좋을 듯하다.

-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38 년 10 월 영국령 북 아일랜드에 대한 『삼천리』 기행문, 『조광』, 『문장』 등 주로 40 년에 씌어진 글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상태이다. 즉 여행기로 씌어지는(공적으로 공유될 수 있었던)글들은 베르사이유 평화체제의 허구성을 공격`조롱하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3 국 추축국동맹의 정신적 심상지리를 기저로 하고 있다. 그의 글은 이 변경의 순간을 단층적으로 보존하고 있고, 대한민국 수립 후 도 한번의 단층을 보여주고있는 것이다.

------(번역에서 제외해 주세요)-----

ex) 참고: 본문 일부 인용

<독일>

「백림기」(『조광』 39.8 월)-

“ 한때는 눈물과 기아와 폐허/오늘은 절규의 서울/ 사람들은 모두 ‘히틀러’를 부른다/ 운터 덴 린덴가는 버티고 있다./한개의 거인과 같이/구주는 시방 그의 眼下에 있지 않는가?/ 게르만의 꿈은 花火같이 피어서 나그네의 두눈을 황홀케 한다./...백림의 등불 밑 동방의 젊은 나그네...”-112

⁴ 특히 아일랜드가 주목되었던 것은 1 차 대전 패전국의 식민지가 아닌 전승국의 식민지였음에도 독립의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이다. 정인섭은 『삼천리』에 당대 누구보다 상세히 아일랜드를 관찰하고 있다.

⁵ 그 시기 『개벽』의 해외 기사들의 상당수도 이런 나라들을 취급하고 있다.

「와이마르 기행-‘괴테’의집을 찾아서-」, 『문장』, 1940.5

“정거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젊은 청년 남자가 바람을 쏘아주고 짙은 바지, 짙은 치마를 입고 지팡이를 잡고서, 가두로 걸어오다가 서로 손을 마주잡고 둥그레하게 서서 고성으로 노래를 합창한다. 나는 그들의 풍모를 보고 ‘옳지 이것이 “윈더 포겔”이라는 산야주파군(山野走破群)들의 모습이로구나!’ 하였다. 이날은 일요일이었으므로 이 신흥청년운동의 근원이라는 이 원족(윈더 포겔)이 더욱 심한 모양이다.그들은 어디까지든 명랑하고 건전하고 소박하면서도 이상이 있고 의기가 있다.(이 운동을 통해서) 그들은 건강이 좋아지고 고향산천을 그리워하게 되며 인정과 풍속을 통해서 강제적 훈련과 생활을 체험한다고 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개인으로 보아서는 사회의 성실한 인격을 배양하고 국가적으로 보아서는 사회의 중견인물을 얻게 되는 것이다. ...독일 사람들은 질서정연한 군대조직을 좋아한다. 그리고 권위와 규율에 복종하기를 좋아한다. 또 그들은 근면분투하는 미덕이 있는데다가 이성적이고 실리적으로 소위 전체주의가 성공되어간다. 그들이 전국적으로 일치단결해서 전후의 부흥에 노력한 것은 유명한 사실이거니와 근로봉사라는 국가적 부역도 이러한 일상훈련에서 얻는 것이 많은 것이다.”-104

<프랑스, 파리>

“9월 15일 베르사이유 궁을 보러 베르사이유 역에 도착...나의 추억을 새롭게 하는 것은 구주대전 직후 1919년 평화회의를 개최했던 ‘거울의 방’인데.....세계는 또다시 전쟁이 없으리라고 꾸밈든 그 講和會議가 이집에서 개최되었건만 20년 후에 파리와 백림 사이는 폭탄의 꿈에 잠을 잘 수 없는 악몽이 갔다왔다 한다. 일찌기 1871년에 독일 ‘프러시아’왕 ‘윌리암’이 파리를 쳐들어와서 독일황제의 등위를 발표한 데도 이 ‘거울의 廣室’이었는데, 저 백림서는 히틀러가 이곳에 날카로운 시선의 한가닥이 와 있지 않은가! 나는 남은 방을 더 자세히 볼 필요가 없었다.”-『조광』, 40년 4월-267 (1960년도 삭제부분)

“ 파리의 밤은 환락의 迷宮/ 세계의 밤은 비로소 눈을 뜬다/루브르의 문이 닫히고 마로니에불이 비칠 때/...오페라 좌 앞에는 인간요리가 沸騰한다....악대의 리듬, 시선의 리듬, 유혹의 리듬/미인들은 서투른 외국인이 저녁거리다/ ‘오백프랑, 삼백프랑, 오십프랑’/...파리병은 누가 치료하려는고 / 마지노선이 악몽이 현실이 되야/防共消燈에 두더지가 되다/ 파리의 밤은 몽마르트 거리/ 肉彈勇士들은 脂粉을 먹고살다”-254

ex)참고- 『세계문학산견』의 수정 예

조광-1940	세계문학산견-1960
---------	-------------

<p>여관과 견학 등 교섭에 편의를 입기 위해서 일본인회관으로 찾아가서 쉬는 동안 거기에서 정담하는... -조광, 102</p>	<p>그때는 한국인의 기관이 하나도 없고, 또 아는 사람이 도무지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일본인회관으로 찾아갔다. -432</p>
<p><u>일본을</u> 펍 좋아하는 모양이었다.</p>	<p>여주인공을 하던 ‘힐데가르트` 바르코’라는 이쁜 여배우가 반가이 나를 맞아준다, 그는 혼자서 면경을 들여다보고 화장을 고치고 있는데 <u>동양을</u> 매우 좋아하는 모양이다.-444</p>
<p>어데서 왔느냐 라던지 지나인이나? 일본인이나?라느니 어디로 가느냐라느니, 이렇게 묻기에 일일이 대답을 했다.</p>	<p>어데서 왔느냐 라던지 지나인이나? 일본인이나?라느니 어디로 가느냐라느니, 이렇게 묻기에 일일이 대답을 하고 <u>한국인임을</u> 말했다.</p>